

한인 입양 남매, 34년 만에 극적 재회

어린시절 각각 미국으로 입양
된 한인 남매가 극적으로 만났다.

지난 20일 ABC뉴스에 따르면 한인 입양아인 르네 알란코(38)와 저스틴 크랙트(36)가 최근 오리건주 포틀랜드공항에서 34년 만에 만났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1984년 당시 2살의 동생 저스틴은 그해 3월 23일 저녁 서울 용산의 한 극장 앞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 또 다음날인 24일에는 저스틴이 버려진 인근 지역 시장 앞에서 당시 4살이던 누나 르네가 홀로 버려진 채 발견됐다. 당시 르네의 호주머니에는 1,000원의 돈과 함께 ‘아이는 부모가 없다. 경찰을 통해 고아원으로 보내달라’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후 남매는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저스틴은 오리건주 세일럼의 한 가정에, 르네는 동생과 약 60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마린카운티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난 2008년 누나 르네



가 먼저 혈육 찾기에 나섰다. 입양서류에 남아있는 이름을 단 서로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립들에게 200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으며 한국도 직접 찾아왔으나 결국 가족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친부모와 남동생의 존재도 모른 채 오랜 시간을 살아온 르네에게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최근이었다. 미국의 유전자검사기업인 23앤드미(23andMe)로부터 친동생을

지난 2014년 동생 저스틴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혈육을 찾고자 23앤드미의 DNA 검사를 받았고, 지난 여름 르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이곳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34년을 돌고돌아 이역만리 땅에서 재회한 남매는 기쁨과 또 감동의 눈물을 서로 닦아주었다.

르네는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
치 못했다.”면서 “정말 놀랍고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
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동생 저스틴도 “항상 세상
에는 나 혼자 뿐이라 생각했다.”면서 34년 만에 만난
누나를 꼭 끌어안았다.

뷔페서 100접시 먹은 남성에게 일어난 일

독일의 한 남성이 무제한 회전초밥 식당에서 100접시를 먹었다 ‘출입금지’를 당했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독일 트 라이에슬론(철인3종) 선수인 야로슬 라프 보브로프스키(30)는 20시간의 특별 단식 뒤 저녁을 먹기 위해 한 회 전 초밥 뷔페식당을 방문했다. 입장료는 19달러. 그는 이 자리에서 단번에 100접시를 해치웠다. 각 접시에는 2~3개의 초밥이 놓여있었다.

그러자 식당 주인 탄 르씨는 그에게 앞으로 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보브 로프스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식당에 오지 말라고



하니 놀랐다.”면서 “계산할 때 웨이터한테 팁을 주려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은 “그는 한 번에 5~7접시씩 계속 가져가서 먹었다.”면서 “그가 먹은 양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접시를 가져간 보브로프스키 때문에 회전 중인 초밥이 부족했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이다.

보브로프스키는 키 5.7피트, 몸무게 174파운드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발맨’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은 그에게 ‘초밥맨’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목줄 착용’한 반려동물 데리고 장 본 남성

목줄을 착용한 반려동물과 함께 장을 볼 수 있다는 마트의 운영 방침에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고 함께 장을 본 한 남성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이다.



지난 18일 오
클라호마주에
살고 있는 한 남
성은 목줄을 한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한 마트를
방문했다. 이 남성은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손에 잡고 있는 반려동물의 목줄 너무
엔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이 있었다. 바로 말이었다. 이
희안한 모습은 당시 같은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토
빈 모리스라는 남성이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
렸고,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
이었다.

로빈은 “한 남성이 말을 위한 물품을 사러 왔다고 하며 말과 함께 마트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라며 “말은 남성의 곁에서 얌전하게 마트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하며 웃음을 지었다.

로빈에 따르면 말을 끌고 장을 보러 온 남성과 말을 마치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쇼핑을 즐겼고, 다른 쇼핑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한편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의 반려동물로 개칭됐다.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하였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됐다.



뉴스나 부동산

한인타운, 부에나팍, 플러튼, 라하브라, 세리토스, 엘바인, LA. OC 전지역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에이전트!



Office 213.385.4989



Eric Kang
에릭 강

Cell 213.663.8544

erickang@newstarrealty.com

Realtor Associate at Beverly Hills Board of Realtor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

한인타운 콘도 \$46만 5천 HOT 방2 + 화2 약 980 sf, 대 약 41,000, SF 좋은 동네	한인타운 콘도 \$57만 방2 + 화2 약 1,120 sf, 대 약 9,000, SF 좋은 동네, 좋은 학교	부에나팍 콘도 \$45만 8천 HOT 방3 + 화2 건 약 1,270 sf 대 1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부에나팍 콘도 \$58만 방2 + 화3 건 약 1600 sf 대 약 2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부에나팍 콘도 \$62만 방3 + 화2 건 약 1,640 sf 대 약 58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비즈니스 매물 다운타운 메디칼 유니폼 홀세일 \$738,000 인벤토리 포함 가격! 월 매출: 평균 \$62,000 Net \$12,000 이상 인벤토리 \$450,000(수입 원가) 20년된 비즈니스 영어필요 가족 비즈니스로 최고의 아이템 무한한 포텐셜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www.newstarrealty.com
부에나팍 \$61만 5천 방3 + 화2 건 약 1,840 sf 대 약 6,6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편리한 교통	플러튼 콘도 \$39만 HOT 방2 + 화2 약 1,1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	플러튼 콘도 \$40만 HOT 방2 + 화2 약 1,2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	플러튼 콘도 \$59만 5천 방3 + 화3 약 1,54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	플러튼 하우스 \$56만 HOT 방3 + 화2, 약 1,27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	
플러튼 하우스 \$57만 5천 HOT 방3 + 화2 약 1,800 sf 대 약 7,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플러튼 하우스 \$60만 방4 + 화3 건 약 1790 sf, 대 약 6,0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 학교	라하브라 콘도 \$42만 HOT 방3 + 화2 건 약 1,1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라하브라 하우스 \$51만 방3 + 화2 건 약 1120 sf, 대 약 6,200 sf, 좋은 동네	라하브라 하우스 \$56만 HOT 방3 + 화2 건 약 1700 sf 대 약 5,60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콘도 \$54만 HOT 방3 + 화3 건 약 1,53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콘도 \$65만 방3 + 화4 건 약 1,850 sf, 좋은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67만 방3 + 화2 건 약 1,500 sf, 대 약 5,300 sf, 좋은 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72만 HOT 방4 + 화3 건 약 2,100 sf, 대 약 4,100 sf, 좋은 동네	세리토스 하우스 \$84만 HOT 방4 + 화3 건 약 2,080 sf, 대 약 6,400 sf, 좋은 동네	

상 가 / 아 파 트 / 창 고 사 고 파 실 분 연 락 주 세 요 !

www.newstarrealty.com